

08

공간속 아름다운 입체

- 1 평면 회화와 다른 입체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2 현대 조소의 다양한 표현 재료와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자코메티의 복원된 작업실 사진. 다양한 도구와 작품이 방 안에 전시되어 있다.

“
입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와 방법이
사용되었을까?
”

입체 작품(조소)은 조명과 관람객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조소는 조각이나 소조 작품을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작품과 주변 공간까지 작품 일부로 보는 설치 미술도 조소에 포함하는 등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입체 작품을 살펴보고 입체의 매력에 빠져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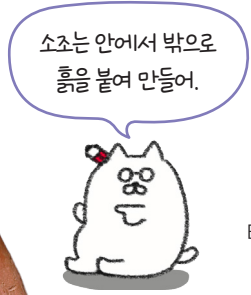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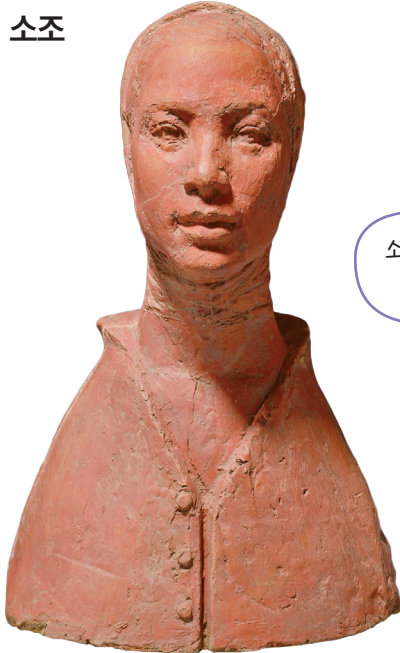
▶ 자코메티(Giacometti, Alberto/스위스/1901~1966)
앉아 있는 남자의 흉상(로타르 3)(브론즈/65.5×28.3×
3.5cm/1965년)



붙이고 깎아서 만든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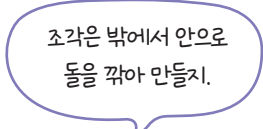
소조는 찰흙, 점토 등을 덧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손으로 빚어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수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라코타, 석고, 합성수지 등으로 2차 작업을 한다. 조각은 나무, 돌 등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깎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 자체로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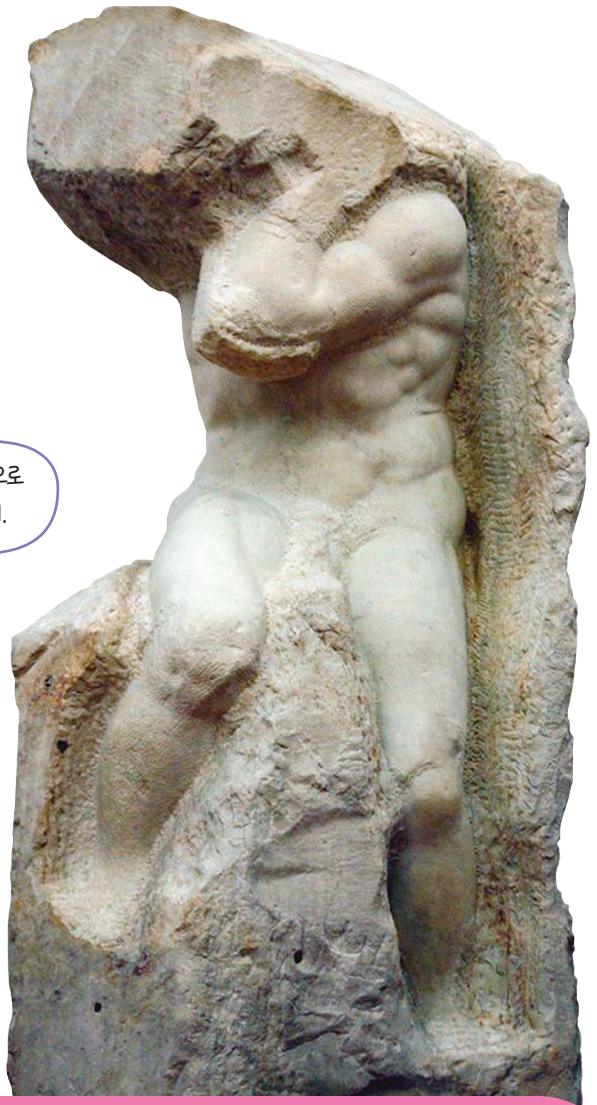


◀ 권진규(한국/1922~1973) **지원의 얼굴**
(테라코타/50×32×23cm/1967년)

조각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큰 덩이 머리 노예(대리석/
높이 278cm/1520~1530년경)



표현 활동

소조와 조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명화

소조로 만들기



✦ **표현 재료**
찰흙, 흙 판, 명화



- 1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흙을 붙여 큰 덩어리를 만든다.
- 2 높낮이를 고려하여 이목구비 구조를 표현한다.
- 3 작은 도구를 활용하여 세부를 표현하고 완성한다.



▲ 이정민(학생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점토/25×16×3cm)

조각하여 만들기



✦ **표현 재료**
목판, 조각칼, 명화, 아크릴 채색 도구

- 1 주제를 정하여 목판에 스케치한다.



- 2 높낮이를 고려하여 목판을 조각한다.
- 3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여 완성한다.



▲ 김수진(학생 작품) **별이 빛나는 밤**
(목판에 조각, 아크릴/21×29.7cm)

다양한 입체 표현

조소는 완전한 입체로 표현하여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조와 평평한 배경에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한쪽 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부조로 나뉜다. 이 밖에도 형상을 바탕 면보다 안쪽으로 파내 표현하는 심조와 구멍을 뚫어 주위 환경과 작품을 연결하는 투조가 있다.

○ 환조



◀ 드가(Degas, Edgar/프랑스/1834~1917) 열네 살의 어린 무용수(청동, 왁스, 혼합 재료/98.9×34.7×35.2cm/1897~1881년)

○ 투조



▲ 무어(Moore, Henry/영국/1898~1986) 기대는 모습: 축제(청동/243.8×619.7cm/1951년)

○ 부조



▲ 장준혁(한국/1971~) M(혼합 재료/92×71×7cm/2013년)

○ 심조



▲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크나텐왕과 네페르티티 왕비(석회석/32.5×39cm/기원전 1340년경/이집트)

추상 조각과 극사실 조각

추상 조각은 대상의 핵심 부분을 단순화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감상자가 작품을 보고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다. 극사실 조각은 대상을 극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감상자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핸슨(Hanson, Duane/미국/1925~1996) 여행자(폴리에스터 수지, 섬유 유리, 액세서리 등 혼합 재료/81.3×119.4×68.8cm/1985년)



추상 조각으로 새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 김종영(한국/1915~1982) 새 (나무/55.5×9×7cm/1953년)

공간에 서 있는 선과 면

조형 요소인 선과 면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철사, 우드록 등을 구부리고 붙이면서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해 보자.



▲ 크레이그 마틴(Craig-Martin, Michael/아일랜드/1941~) 안전한 옷핀(파랑)(스테인리스강에 코팅/312×325×2.5cm/2019년) 선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기타(두꺼운 종이, 끈, 마분지, 철사/76.2×52.1×19.7cm/1913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서 면적 요소를 느낄 수 있는 입체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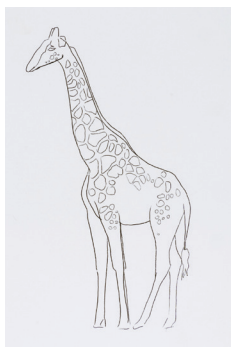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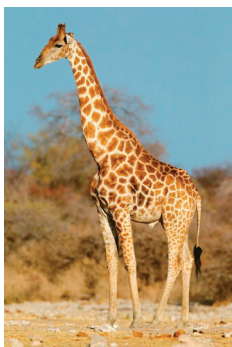


▲ 고펠리(Gormley, Antony/영국/1950~) (좌) 도메인 34(강철/186×69×35cm/2002년) (우) 열린 버팀대(강철/180×47.6×77cm/2017년) 인체를 선과 면을 사용하여 표현한 입체 작품이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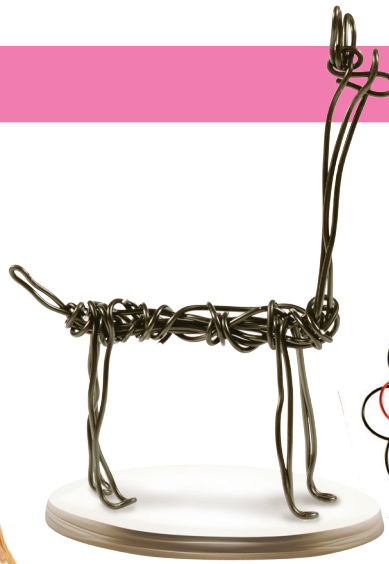
선과 면이 입체가 되다

표현 재료 볼펜, 철사, 우드록, 접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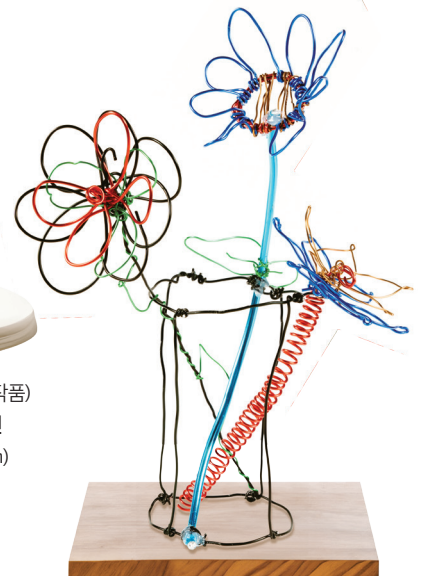


- 1 사물, 얼굴 등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선정한다.
- 2 대상을 관찰하여 스케치한다.
- 3 철사나 우드록을 활용하여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 최윤서(학생 작품)
기린(우드록에 아크릴/20×18×3.5cm)



▲ 김우현(학생 작품)
철사로 만든 기린
(철사/19×21×3cm)



▲ 김보정(학생 작품)
피어난 꽃(철사/20×1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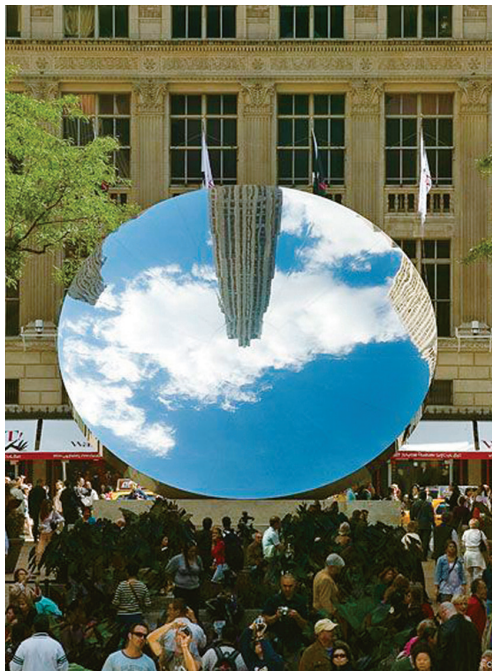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입체

전통 조소는 주로 흙과 돌 등을 활용하여 입체 작품을 제작한 것을 의미하지만, 현대 조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 미디어 매체, 신체와 같은 다양한 표현 재료를 활용하면서 재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 김야타(한국/1956~)
(좌) 온 에어 프로젝트 113,
(중) 온 에어 프로젝트 116-2,
(우) 온 에어 프로젝트 116, 마오의 초상, 얼음의
독백 시리즈(얼음/233×188
cm/2006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의 모양이 변하
는 과정을 드러내며 온도,
시간과 같은 비물질적 요
소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 뒤샹(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자전거 바퀴(도장된 나무 걸상에 장착된 금속 바퀴/
129.5×63.5×41.9cm/1951년)



◀ 카푸어(Kapoor, Anish/
인도, 영국/1954~) 하늘
거울(스테인리스강/직경
10.6m/2006년) 주변을 반
사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주
변 공간과 감상자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 퀸(Quinn, Marc/영국/1964~) 나 자신
(작가의 피, 스테인리스강, 방풍 및 냉동
장치/20.8×63cm/1996년)



▲ 이재문(한국/1964~) 마지막 선물(웃,
혼합 재료/40×110×100cm/2011년)



▲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자석 TV(오브제/1965년)



알고
가기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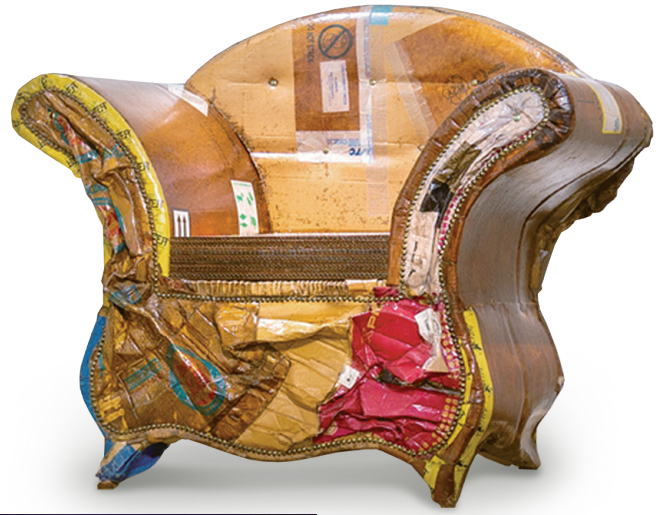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백남준은 1974년부터 비디오 아트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TV를 이용한 설치 미술, 비디오를 사용하여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비디오 아트를 구현하였다. 그가 보여 준 인간과 첨단 매체의 상호 작용과 예술 표현은 미술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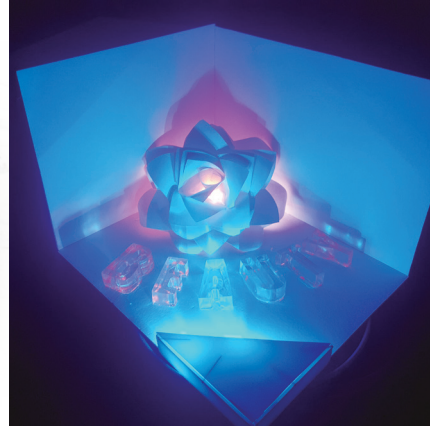
◀ 1983년 뉴욕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백남준의 모습이다. 백남준은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 굽타(Gupta, Subodh/인도/1964~) 마음이 닫히다(스테인리스강/240×150×205cm/2008년) 인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식기를 활용하여 해골 형상을 만들었다.



▲ 김현준(한국/1970~) 깨지기 쉬운(마분지/120×110×80cm/2010년) 제품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골판을 재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 나한결(학생 작품) 꽃(우드록, A4 용지, LED 조명/18×21×18cm)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표현활동

정크 아트 제작하기

표현 재료

다양한 폐품과 쓰레기, 접착제, 아크릴 물감

- 1 제작할 작품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폐품과 쓰레기를 수집한다.
- 2 폐품을 오리고 붙이며 모양을 구상하고 접착제로 고정한다.



- 3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여 완성한다.



◀ 김도현(학생 작품) 앵무새(분무기, 셔플록, 침대 고정 밴드 클립, 털실, 나뭇가지/30×18×23cm)



▶ 황보성(학생 작품) 거북이(플라스틱 용기, 유리그릇, 전구, 침대 고정 밴드/25×20×17cm)



관객이 참여하는 입체

현대의 입체 작품은 과거와 달리 주변 공간이 작품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감상자의 경험과 체험까지 작품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도 한다.

▲ 뉴멘/포 유스(Numen/For Use/오스트리아/1998년 그룹 결성(스벤 존케, 크리스토프 카츨러, 니콜라 라델리코비치) 테이프 서울(스카치테이프/2,750×1,520×700cm/2017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이프를 활용하여 제작한 설치 작품. 관람객들은 작품을 체험하여 공간에 대한 지각을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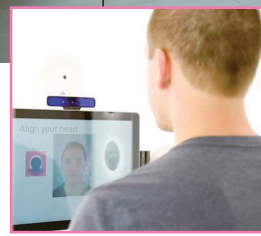


▲ 최우람(한국/1970~) 원탁(알루미늄, 인조 밀집, 기계 장치, 동작 인식 카메라, 전자 장치 설치/110×450×450cm/2022년) 테이블에 놓인 머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모습과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표현하였다.

머리로 표현된 구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관람객이 떨어진 머리를 원판에 올려놓으면 다시 경쟁이 시작되어요.



▲ 모어(Mohr, Matthew/미국/1980~) 현재의 우리(LED 스크린 리본/높이 426cm/2017년) 머리 모양 설치물의 목 뒤에는 3D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가 있다. 방문객이 사진을 찍고 부스 밖으로 나가면 거대한 머리에 그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단원
점검하기

- 평면과 다른 입체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재료로 입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를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 미켈란젤로 -



→ 대중과 소통하는 현대의 공공 미술

영국 런던에는 국민 영웅 넬슨 제독을 기리는 트래펄가 광장이 있다. 광장의 사방에는 네 개의 좌대가 있는데, 이 중 세 개는 영국 제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좌대는 자금 부족으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150년이 지난 2005년부터 좌대를 활용할 목적으로 현대의 조각 작품을 임시로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네 번째 좌대(The Fourth Plinth) 프로젝트'의 시초가 되었다.

→ 네 번째 좌대에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 왔을까?

런던시는 2005년부터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와 본격적으로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가를 선정하고 후원하여 그 작가의 작품을 네 번째 좌대에 전시하였다. 작품 선정 과정에서도 일반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대중이 현대 미술 작품을 접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네 번째 좌대에 전시되었던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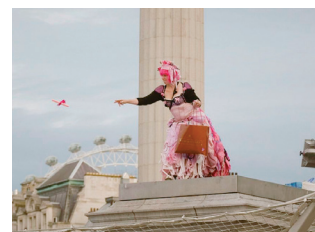
퀸은 '아름다운 신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



◀ 퀸(Quinn, Marc/영국/1964~) 임신한 엘리자 래퍼 (대리석/3.55×1.8×2.6m/2005년) 실제 작품의 모델인 엘리자 래퍼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장애에 굴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한 작가이다.



▲ 화이트리드(Whiteread, Rachel/영국/1963~) 기념물(주조, 금형 제작, 폴리우레탄, 수지/5×5×2.5m/2001년)



곰리(Gormley, Antony/영국/1950~) 한 사람&다른 사람(퍼포먼스/2009년) 시민 2,400명을 모집하여 100일 동안 한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며 네 번째 좌대에 올라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들은 특정 인물을 재현하기도 하고, 눈에 띄는 분장을 하거나 종이 연을 날리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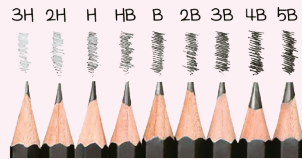
04 드로잉에 빠져들다

» 드로잉의 종류

- 크로키: 순간의 인상을 빠르게 그리는 기법이다.
- 스케치: 작품 제작 전에 그리는 대략적 밑그림
- 소묘: 대상의 형태를 단색의 선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 정밀 묘사: 대상의 세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기법이다.
-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의 형태를 끊기지 않는 한 선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 스크리블드 라인 드로잉: 마치 거미줄이 얽혀 있듯이 구불구불한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형태를 그리는 기법이다.

» 드로잉의 재료

- 연필: 부드러운 질감, 섬세한 표현, 명암 조절과 수정이 쉽다. 심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진하고 연한 정도가 다양하다.
- 펜: 가늘고 날카로운 선 표현이 가능하지만 수정, 보완이 어렵다. 펜촉의 굵기나 모양이 다양하다.
- 목탄: 색조가 풍부하고 질감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루 날림과 번짐이 심해 정착액이 필요하다.
- 붓(물감): 손의 압력과 물의 양을 조절하여 굵기를 달리하고 농담을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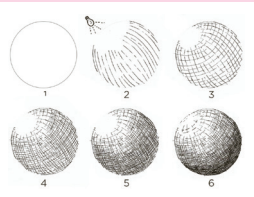
▲ 연필의 다양한 경도, 농도



▲ 자연 목탄

크로스 해칭 기법

색면을 칠해 명암을 표현하지 않고 가는 선을 방향을 바꿔 가며 겹쳐 쌓아 밝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드로잉 기법이다.



05 다양한 회화의 세계

» 다양한 인물화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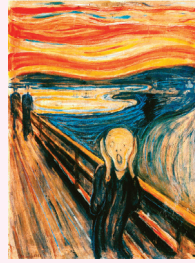
- 대상: 초상화, 자화상, 군상화
- 부위: 두상화, 흉상화, 반신상화, 전신상화
- 자세: 좌상화, 와상화, 입상화

» 다양한 표현 용어

- 전신 사조(傳神 寫照): '전신'은 정신을 전한다는 뜻이고, '사조'는 베끼어 비춘다는 뜻이다.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외형 묘사뿐만 아니라 인격과 내면세계까지 담아내는 것을 중시한 용어이다.
-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변형, 왜곡이라는 뜻으로 대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리는 방법이다. 회화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인물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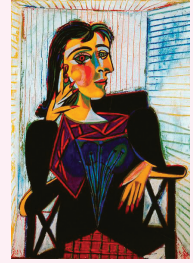
비율 변형, 다시점, 색상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물을 표현할 수 있다.



▲ 몽크(Munch, Edvard/노르웨이/1863~1944) 절규(판지에 유화, 템페라, 파스텔/91×73.5cm/1893년)



▲ 보테로(Botero, Fernando/콜롬비아/1932~2023) 발레 바의 무용수(캔버스에 유화/164×116cm/2001년)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도라 마르의 초상화(캔버스에 유채/92×65cm/1937년)

» 정물화의 화면 구성 요소

- 구도: 원형 구도, 삼각형 구도, 마름모 구도, 일직선 구도
- 시점: 단일 시점, 다시점
- 빛과 그림자



▲ 피시(Fish, Janet/미국/1938~) 허브티(1995년)

» 바니타스 정물화의 다양한 상징

- 바니타스는 16~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한 정물화의 주요 주제이다. '덧없음', '헛됨'을 상징하는 세속적인 물건들로 구성된 그림이다.



▲ 콜리에르(Collier, Evert/ 네덜란드/1640~1708) 책과 필사본과 두개골이 있는 정물(캔버스에 유채/70×56.5cm/1663년)

• 바니타스 상징

- 해골: 피할 수 없는 죽음
- 시계: 인생의 짧음
- 책: 지식의 무용함
- 악기: 인생의 간절함과 덧없음
- 썩은 과일: 부패

»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 선 원근법: 3차원의 공간과 대상을 소실점을 활용하여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 소실점 개수에 따라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로 나뉜다.
 - 소실점: 고정된 시점에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들이 모이는 점이다.
- 공기 원근법: 눈과 대상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나 빛의 작용으로 생기는 색채와 윤곽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 먼 곳에 있는 사물의 색은 흐릿하게, 가까이 있는 사물의 색은 선명하게 표현한다.

- 삼원법: 동양 산수화에서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사용된 공간 표현 방법. 심원, 평원, 고원으로 나뉜다.
 - 고원: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점
 - 평원: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시점
 - 심원: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

06 상상과 추상의 회화

» 초현실주의와 표현 기법

- 초현실주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현실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는 미술 사조이다. 자동기술법, 데페이즈망 기법 등으로 이성적 사고를 거부하려고 했다.
 - 자동기술법: 익숙한 기법이나 이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기법이다.
 - 데페이즈망(dépayement): ‘추방’이라는 뜻이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전혀 관계없는 대상을 한 공간에 함께 두는 기법이다.

07 판에서 피어나는 그림

- 판화: 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간접 회화

볼록 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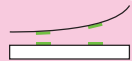
- 판을 만들고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어 내는 기법
- 강렬한 대비 효과가 특징이다.
- 목판화, 고무 판화, 콜라그래피 등

오목 판화



- 매끈한 판에 미세한 선과 점으로 흠집을 내어 잉크가 고이게 한 뒤 찍어 내는 기법
- 인쇄 시 강한 압력이 필요하다.
- 직접법: 드라이포인트, 메조틴트
- 간접법: 에칭, 애퀴틴트

평판화



- 새기거나 깎는 과정 없이 평평한 판에 안료를 올려 바로 인쇄하는 방식
- 인쇄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회화 표현이 가능하다.
- 석판화, 모노타이프 등

공판화



- 판에 구멍을 뚫은 뒤 잉크를 통과시키는 기법
- 원화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 스텐실, 실크 스크린 등

08 공간 속 아름다운 입체

» 조소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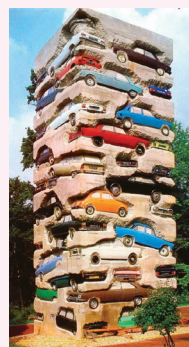
3차원의 공간에 재료를 깎거나 빚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조형 예술이며 조각과 소조로 나뉜다.

- 조각: 목조, 석조 등 단단한 재료를 외부에서 내부로 깎아 표현하는 활동
- 소조: 점토나 유토 등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에서 외부로 살을 붙여 표현하는 활동
- 인체 조소의 다양한 종류
 - 부위: 두상, 흉상, 반신상, 전신상, 토르소
 - 자세: 입상, 좌상, 와상
 - 표현 방식: 부조, 환조, 심조, 투조

» 조소의 확장

- 정크 아트: 일상생활에서 나온 폐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품
- 아상블라주(asssemblage): ‘수집, 조합’이라는 뜻이다. 폐품이나 일상 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한데 모아 제작하는 기법이다.
- 모빌(mobile): 가느다란 실, 철사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쇠조각이나 나뭇조각을 매달아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조각
-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미술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
- 라이트 아트(light art): 빛의 효과를 살려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예술 작품
- 콤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일상의 모든 사물과 버려지거나 파기된 것을 회화에 접목한 일종의 확대된 개념의 콜라주 기법
- 퍼포먼스(performance):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예술. 사람의 몸이 곧 매체가 되어 무대 중앙에 서기 때문에 성, 인종과 관련한 주제, 자신과 타인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 레디메이드(ready-made): 실용성이 있는 ‘기성품’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상블라주〉



◀ 아르망 (Arman/ 프랑스→미국/ 1928~2005)
장기 주차 (59대의 자동차, 1,600톤의 시멘트/ 600×600×1,800cm/1982년)

〈키네틱 아트〉



▲ 안센(Jansen, Theo/네덜란드/1948~) 아나마리스 우메루스(PVC 파이프, 케이블 타이/1,200×200×400cm/2009년)

〈퍼포먼스〉



▲ 알리스(Alys, Francis/벨기에/1959~) 때때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퍼포먼스/1997년)

〈콤바인 페인팅〉



▶ 라우션버그 (Rauschenberg, Robert /미국/1925~2008) 코카콜라 플랜 (혼합 재료/ 67.9×64.1×12.1cm/ 1958년)